

‘블루 카펫’ 노벨상 시상식을 다녀와서

글 | 권오갑 _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okkwon@kosef.re.kr

시상식이 끝난 후 필자 일행은 만찬 장소인 스톡홀름 시청 홀로 이동했다. 약 800만 개의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스톡홀름 시청은 그 내부가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전세계 TV 방송과 주요 언론사는 이 거대한 만찬장(일명 Blue Hall)에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을 보도하느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노벨 재단에서 엄선한 1천288명 만찬 참석

노벨 만찬에는 오직 1천288명만 초청된다. 노벨 재단은 초청자를 선별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첫번째 초청 대상은 국제적인 인물이다. 대개의 경우, 과학 분야와 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 장관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역대 시상식과 만찬을 통틀어 초청된 한국인 중 필자 일행이 7번째라고 한다. 두 번째 초청 대상은 스웨덴 시민이다. 시민들이 초청장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벨 축제를 준비하는 팀에 합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내놓거나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전세계의 대학생들도 만찬에 초대되는 주요 대상 중 하나다. 만찬에 초대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은 응모를 한 후 추첨을 통해 선별된다.

만찬의 초청자들 외에도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블루 홀이 아닌 시청 안의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노벨 만찬 이전에 진행되는 행사의 보안 담당자들, 세계 주요 인사의 보디การ์ด, 특별히 선정된 신문 기자들, 외국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들에게는 초청장이 발송되고 초청자들은 만찬장 문 앞에서 초청장을 보여주며 만찬장에 입장한다.

시청 홀에 도착하니 입구에 놓인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작은 책자들이 쌓여 있었고 모두들 한 권씩 들고 펴보고 있었다. 필자도 한 부를 얻어 보니 연회장내의 테이블 배치도와 참석자 좌석배치 안내책자

였다. 필자 일행은 현지의 사전 배려로 구스타프 국왕이 앉은 소위 로열 박스의 맞은편 근처에 앉게 되어 국왕 부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볼 수 있었다. 만찬 좌석배치시에는 서로 국왕 부처 근처에 앉으려고 비공식적인 로비가 많다고 한다.

만찬 이후 일반인들에게도 동일 메뉴 판매

노벨 만찬을 위한 메뉴를 정하고 특정한 음식을 메뉴로 결정하는 과정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매년 책임 주방장과 시청 식당의 매니저는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음식 전문가들로부터 만찬에 대해 의견을 듣고 또 자문을 구한 다음 세 가지 요리를 제안하게 된다. 제안된 세 가지 요리는 노벨재단 직원들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메뉴가 결정된다.

조개류를 사용한 음식은 알레르기 때문에 최종 메뉴에서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 메뉴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만찬에 참석하는 초청자들이 매우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권역의 음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뉴는 스칸디나비아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손님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노벨 만찬의 역사에서 신기한 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긴장감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는 데도 아직까지 커다란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회 시작을 알리는 음악 연주와 함께 국왕 부처와 수상자들 부부가 각 분야 심사위원장, 그리고 수상 국가의 대사 부부들과 함께 2층 난간 복도를 거쳐 계단을 따라 아래층 홀로 천천히 내려오자 우리와 같은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노벨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국왕이 노벨을 위한 건배를 제의한 후 300여 명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일제히 음식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에 뽑히는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수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이 날만은 온 종일 TV 앞에 앉아 시상식과 만찬 행사를 지켜본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이 날 만찬회에 나왔던 메뉴가 다음 날부터 스톡홀름 시청 식당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판매된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에서 공수된 생화로 만찬장 장식

필자 일행은 환담을 나누며 스웨덴산 핑 종류의 야생 조류 스테이크를 즐겼다. 식사 중간에는 꽃을 든 남자와 여자들이 음악에 맞춰 등장하면서 각 식사 테이블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다. 노벨 축제기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거리를 온통 화려하게 수놓는 꽃장식이다. 수천, 수만 송이의 생화로 만들어진 꽃 장식은 TV로 방영되지만 그 실제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벨상 시상식과 만찬장에 사용되는 꽃 장식은 이탈리아산 레모시가 모두 비용을 후원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알프레드 노벨이 말년을 북부 이탈리아에서 보냈다는 점, 산 레모시가 꽃으로 유명한 도시라는 점, 산 레모시를 대중에게 홍보하는데 꽃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다.

장식을 위한 꽃은 이탈리아에서 비행기와 냉동차를 이용해서 스웨덴까지 운반된다고 한다. 운반된 꽃은 스웨덴의 유명한 헤젤비 화원에서 아름답고 근사한 꽃 장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콘서트홀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끝나면 시상식때 사용된 꽃은 일단 대학생 조합으로 옮겨져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꽃향기를 맡으며 노벨 주찬을 축하한다고 한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수상자들의 간단한 수상소감 발표가 있었다. 특히 헬리코박터 균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베리 마셜 교수는 노벨 만찬음식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조크를 하여 좌중을 웃겼다. 약 2시간에 걸친 만찬을 흥겹게 즐기고 난 후 2층 볼 룸에서 시상식 무도회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복도의 긴 홀 끝에는 국왕 내외와 그 가족들이 앉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벨의학상 피터 교수, 수상 비결은 '장수' (?)

1901년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은 모두 스톡홀름의 그랜드 호텔에 머문다. 또한 호텔 옥상에는 수상자 국가의 국기가 게양된다. 노벨상이 수상되던 첫해에는 노벨상 만찬이 그랜드 호텔의 미러 홀에서 개최되었으나 점차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시청으로 만찬 장소를 변경했다고 한다. 노벨 재단은 노벨상 수상자와 그 가족의 체재비를 모두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베리 마셜 박사와 함께한 필자

부담하며 1991년 이후에는 그랜드 호텔에서 같이 머무르게 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스톡홀름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일부는 재미있는 개인 일정도 보낸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1988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조지 히칭스(George Hitchings)는 스톡홀름에 오자마자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는 호텔에서 G.H.(그랜드 호텔의 약자)가 새겨진 도자기를 발견하고는 마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나중에 결혼할 때 G.H.가 새겨진 그릇 세트를 사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1996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피터 도허티 교수는 노벨상 수상 비결이 무엇이라는 한국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담배 끊고 술 적게 먹고 오래 살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조크를 한 바 있다. 또 어느 수상자는 노벨상 목표를 세운다고 수상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타게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도 한다. 그러가 하면 일본의 경우 노벨 재단 이사장의 발표에서처럼 향후 50년내 30명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한다는 야심 찬 기본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 목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개인의 창의적 의지와 정부의 장기적 지원 정책이 어우러져 수상이 앞당겨질 수 있는 않을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과 목표 의식이 없다면 무미건조한 경기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을 지키면서 젊음을 불사르는 우리 한국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후보들에게 한없는 응원을 보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공대 졸업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했다.